

# 친·외가 41명 출가 '수행의 귀감'

동쪽 일타(東谷 日塔)스님. 우리나라 불자들중 '일타스님(67·조계종 원로의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회장을 지낸 대운사요, 자유자재한 언설변재로 듣는 이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를 심어주는 대법사며, 젊은 시절 태백산 깊은 골에 들어 6년 동안의 수선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룬 대선사이기도 하다. 나아가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은 스님을 '자비보살'이라 칭한다. 가슴에는 태양을, 입에는 연꽃을 미소로 띠우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화합과 용기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십여 종의 법을 주옥같은 저술로써 불자들의 마음을 밝혀준 타고난 문장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님 친가·외가 전가족 41명이 모두 출가해 부처님 될 중자를 심었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는 부처님 열반 이후 한 집안의 출가 기록으로는 단연 최고이다.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사실이다.

일타 스님 가족·친척은 어떻게 이토록 지중한 불연(佛緣)을 맺을 수 있었는가. 그 연원은 스님의 외증조할머니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글에서의 모든 가족·친척 호칭은 일타스님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기로 한다.)

있다. '업'이라는 말에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낀 할머니는 스님께 사경을 했다. '제발 업(구렁이)만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할머니의 간청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장님 업이 되기 싫거든 오늘부터 바깥 출입을 금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시오."

말이 끝나자 비구니스님은 바깥과 사자를 방에 놓아 둔 채 출연히 사라졌다. 할머니는 방의 가장 좋은 위치에 스님의 사자와 비상을 걸어 놓고 아침에 눈만 뜨면 몇 차례 절을 올린 다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뒤 할머니는 20년



◇일타스님

1902~1955)씨다. 4형제중 맏이었던 큰외삼촌은 부인과 하나뿐인 아들을 남겨둔 채 천진도인 해월(慧月)선사의 제자로 출가하여 법안(法眼)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 뒤 법안스님은 오대산 금강산 천성산 지리산 등지의 이름을 딴 선방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참선정진하였다.

두번째로 출가한 사람은 일타스님의 외할아버지 김만수(金萬洙·1878~1947)씨로서, 어머니의 방광과 아들의 출가이후 수년동안 거사의 신분으로 금강산 마하연 지리산 칠불암 송광사 삼일암 등의 이름있는 선방을 전전하다가, 셋째 아들인 용학(容學)이 장가를 들자 불려 물었다.

"애야, 너도 이제 장가를 갔으니 어른 아니냐? 내가 없어도 머슴들 데리고 농사지을 수 있겠느냐?"

## 외증조모 7일장내내 '방광'...가족불심 태동 큰외삼촌 첫 출가...외조부 自火葬 '이적' "해인사가면 해인차사"...머슴가족 6명도 출가 누나 응민스님 '정진제일수좌'로 유명

짧은 월기에 아들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그 길로 출가하여 '추금(秋金)'이라는 법명으로 용맹정진하였다.

세번째 출가자는 일타스님의 막내 외삼촌인 김응명(金容明)씨였다. 막내 외삼촌은 일본 명치대학(明治大學)을 다닌 수재로서 온 집안의 희망이었다. 그런데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끊어진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사람이 병원에 옮겨 3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때 병실에서 <불교성전>을 보다가 흥법대사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시를 읽고 발심하였다. 193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배를 타고 귀국한 응명은 고향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양산 통도사로 가서 윤고경(尹古鏡) 대강백을 은사로 모시게 되었고 '진우(震宇)'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때 힘이 빠진 것은 셋째 외삼촌 용학이었다. 큰형은 스님이요, 둘째형은 방랑자, 일년내내 백마지가 가 넘는 넓은 땅을 농사지어 그 비싼 학비를 보내왔건만, 믿었던 동생(용명)마저 스님이 되니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가족들에게

"며칠 동안 바람피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찾아간 곳은 큰형님 법안스님이 계신 해인사 백련암이었다.

법안스님은 '혼자서 대가족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드니 하산하여 집안을 맡아달라'는 동생의 말을 한쪽 귀로 흘리고 오히려 출가를 권유하였다.

"무엇하러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가? 스님되어 절에서 살아보게. 이 절이 바로 극락일세."

거듭되는 권유와 한달 남짓 절에 머물면서 느낀 매력 때문에 셋째 외삼촌 용학도 마침내 자운(慈雲)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보경(寶鏡)'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어지는 아들들의 출가로 집안에 여자와 아이들만 남게 되자, 크게 상심한 외할머니 강씨(姜氏)가 직접 백련암으로 향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오히려 두 아들의 권유에 못이겨 해인사에 눌러앉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나신 사람은 수년동안 만주로 러시아로 떠돌아 다니다가 막 귀국한 일타스님의 둘째 외삼촌인 김용남(金容男·법명 靈泉)씨였다.

"해인사만 가면 함흥차사가 아닌

'해인차사'가 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가서 백련암을 불태워 버리고라도 어머니와 형제들을 데리고 오리라."

남은 가족들에게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선 천하한량 둘째 외삼촌이지만 별 수가 없었다. 또 설득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가족들에게 선언하였다.

"오줌같은 험난한 세상에는 중이 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옛사람들이 무릉도원 찾아갔듯이 우리 모두 해인사로 떠날시다."

1940년, 마침내 외가의 모든 식구들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해인사로 향하였다. 그때 법안스님의 장인·장모와 아들 둘도 함께 출가하였고, 집안을 돌보던 머슴들 가족 6명도 따라서 출가함으로써 일타스님의 외가족 35명은 모두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스님의 친가에서 처음으로 출가한 사람은 말발인 경희였다. 1940년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는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직 공부만 하고 싶어 외할아버지인 추금스님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다.

"그야, 스님이 되면 되지." 이 한마디에 아무도 모르게 출가하여 금강산 법기암에서 대원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응민(應敏)'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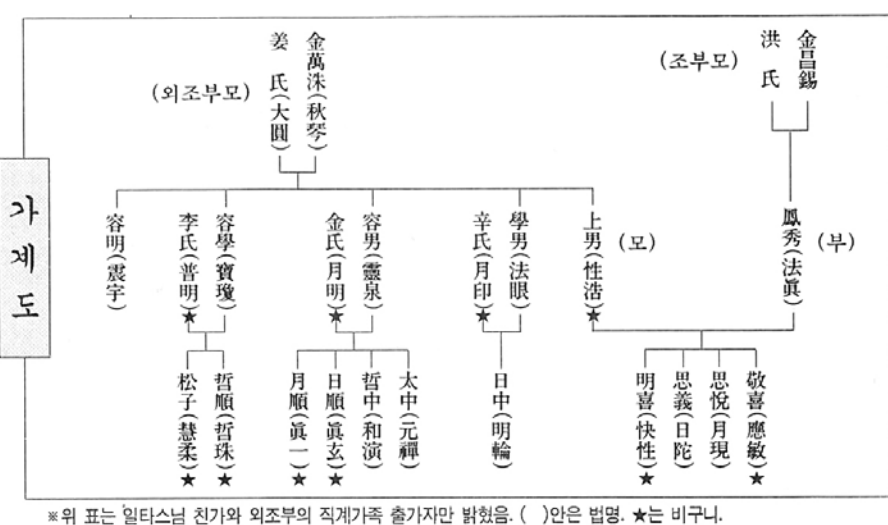
말발 다음으로 출가한 사람은 일타스님의 형인 사열, 곧 월현(月現)스님이다.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면 중운조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외할아버지의 한 말씀에 팔만대장경을 배운다며 해인사로 출가하였다.

말발과 말발들이 출가하고 친정 식구들 모두가 해인사로 들어가자 일타스님의 어머니도 출가를 결심하였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5학년내 재학중인 아들 사의(일타스님)가 걱정이었다. 1941년,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마련한 다음 막내딸 명희(명희(淸性)스님)를 데리고 문경 운림암으로 들어갔다.

1942년 일타스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김봉수)는 수석사 중공선사를 찾아가 출가하였고, 사의(일타스님) 역시 외할아버지 추금스님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로 향했다. 마침내 일타스님의 친가·외가 41명의 대가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의 길로 떠난 것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 경이로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중노릇'을 아주



###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

큰외삼촌인 법안스님 또한 오직 발우 하나, 누더기 한 벌로 살면서 10여년 동안 용맹정진하였고, 35세가 넘자 해인사 백련암으로 옮겨 9년 동안의 지장기도를 통해 오도를 하신 분으로, 1955년 서울 삼각산 도선사 석불 뒤의 바위에 앉아 입적하였다. 둘째 외삼촌 영현스님은 속리산 경내 토굴에서 7일동안 선정삼매에 들어 걸림없는 경지를 이루었고, 셋째 외삼촌 보경스님은 세속에서도 살림을 잘 살았지만 출가 후에도 역시 살림을 잘 살아서 부산 감로사 창건 및 사찰 중건 등 많은 불사를 행하였고, 기도정진과 함께 선방살림을 맡아 수좌들을 돌보는 소임을 헌신적으로 행하였다. 막내 외삼촌 진우스님은 전국의 선방을 전전하면서 도를 닦아 운봉(雲峰)·경봉(鏡峰)·전강(田岡)선사 등 여러 고승들로부터 정진력을 인정받았고 스스로 지은 오도송을 전국의 선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타스님의 아버지 자운(慈雲堂) 법진스님은 1986년 입적하는 날까지 그야말로 '깔깔한 어둠속에서 만져보아도 스님'이라는 말을 들을만큼 묵묵하면서도 깊은 자비심을 품었던 분이다. 누나 응민스님 역시 '중노릇' 잘하여 만공선사로부터 '정진제일 수좌'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생동안 '비구니스님의 귀감'으로 살다가 1984년 12월 15일에 7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앉은 채 입적했다.

이제 이 41명 중 우리들 곁에 남아있는 분은 일타스님과 여동생인 패성스님, 외삼촌동생인 혜유스님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41명 스님들의 행적속에서 '정진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가'를 느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를 모두의 발심을 위해 영원히 영원히 타오르는 등불로 남을 것이다.



· 도서출판 초림 대표 · 불교신학연구원장

### 외증조모 죽음과 방광

스님의 외증조할머니인 안성 이씨 평등월 보살은 흥정도 공주 땅에 자리잡은 광산 김씨 영인(永仁)에게로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다. 평등월 보살은 늙은이에게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만수(萬洙)·완수(完洙)·은수(恩洙) 세 아들의 효성은 지극하고 매달같이 방광(放光)을 하는 것이었다. 낮에는 햇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밤만 되면 그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불통을 들고 달려오기를 매달같이 하였다. 그리고 문상객으로 불리는 집안 역시 불을 꺼지 않아도 대낮같이 밝았다.

### 이어지는 외가의 출가

외증조할머니의 장례를 마친 일타스님의 외가 식구들은 그때까지 생각하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외증조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저 노인장이 삼의 골에서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 열불을 하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이변이 일어나자 절실한 신심으로 변한 것이다.

가장 먼저 출가한 이는 일타스님의 큰외삼촌인 김학남(金學男·

##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 포교원장) 은감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예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주 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보급처: 부산지부 (051) 633-6412~3 진주지부 (0591) 758-6611 서울 (02) 597-2055~6

##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시흥 대천 대구 부산  
신주 40k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6) 339-2900, 0303 32-0652, 0072